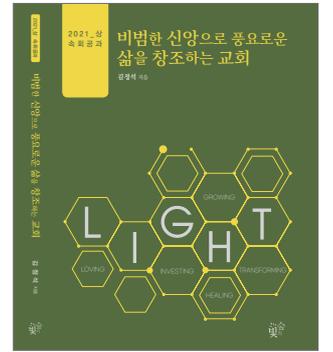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

(신 26:11)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1년 김정석 담임목사 신년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지난 한 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인생의 힘든 여정이었지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까지 오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망하고 전망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망과 좌절의 환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한 미래학자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와 지식 근간이라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거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미래를 열어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꿈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이나 꿈들이 우리 삶에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간을 마지막처럼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교회”(신 26:11) 로 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범한 신앙은 신비로움이나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 더욱 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며 더 나아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비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비범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광풍 앞에 우리의 마음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음을 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전염병이라는 광풍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기도 모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성경공부 모임도, 그리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누던 속회와 선교회 모임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며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전도와 선교도 지금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주저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뿐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속회와 선교회의 모임이 다시 불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비범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새롭게 되는 역사와 더불어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 3면에 계속)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누가복음 19장 1~10절)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예리고 지역의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닌 것 같은 정체성의 혼란,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신앙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관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민족주의자,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을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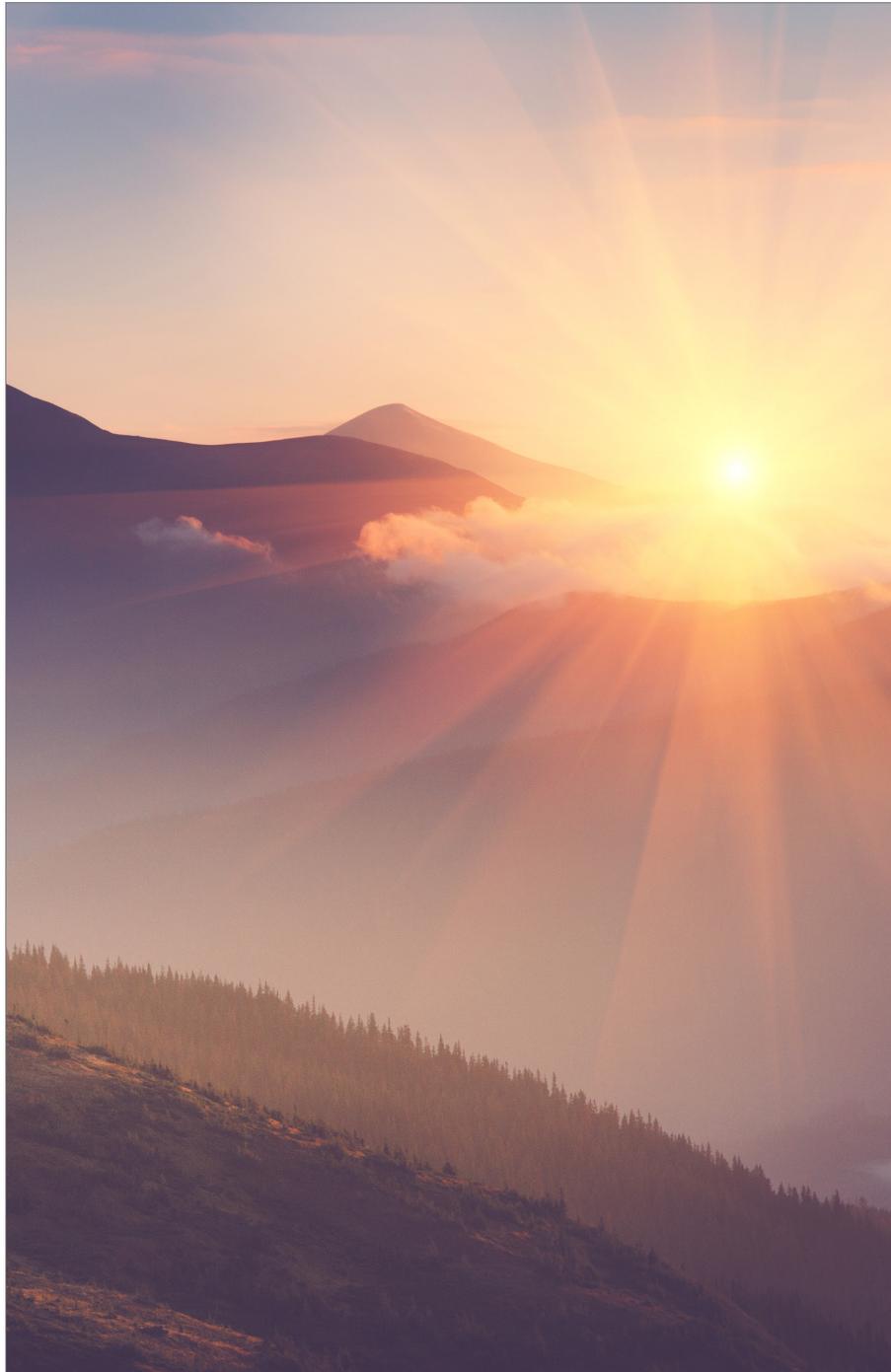
이 두 가지의 고민으로 갈등하던 삭개오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메시아’로 칭송받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예리고에 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고,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갈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과 관계의 상처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여러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고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키가 작았던 그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선택합니다. 나무 위에 오른 그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시며 그의 집에서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기피했습니다. 심지어 거지조차 세리가 주는 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세리를 멀리했습니다.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으며, 세리와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죄인으로 정죄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에게 말을 걸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와 사고를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삭개오만을 바라 보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주는 것, 지식이나 명예를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의를 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



누가복음 19장 1~10절

1.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 가시더라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가 오니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 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감찰이나 갚겠나이까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입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의를 주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변화가 시작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마음의 변화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으면 어떤 변화

가 일어날까요? 첫째, 겸손해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안정감을 느낍니다. 지식과 경험이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더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변화를 느

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갈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를 나눠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우리를 의롭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재산을 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마음과 삶이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같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방치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성격 가운데는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며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1면에 이어)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광림교회

부족한 담임목사가 연회의 책임을 맡아 일하는 감독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작은 교회들이 우리 남연회 안에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광림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작은 교회에 대한 돌봄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에 축복을 주신 것은 이러한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연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격려하며 나누며 위로하고 싶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단에 허락하신 국내의 선교지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영적인 돌봄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는 잠비아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선교와 교육 그리고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와 연합하여 AIDS 퇴치 운동과 더불어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조혼제도의 잘못됨을 널리 알리는 국민계몽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 여러분.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에게 켜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

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나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을 우리에게 주시어 이 땅에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소외당하여 슬피하거나 아파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심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길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여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림의 성도들의 가정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담임목사 김 정 석

포토 뉴스



속회지도자교육 시즌2
2021년 속회지도자교육 시즌2가 시작되었다.



365일 매일예배서
개인묵상집, 매일가정예배서로 활용할 수 있다.



온타임
온타임 바로가기 QR코드



서울남연회 신년하례식
서울남연회 신년하례식이 1월 7일 광림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담임목사 동정



- 1/2 시무예배
- 1/3 신년주일
선교물품 전달식
- 1/4 서울남연회 시무식
- 1/6 수요치유의신학
- 1/7 서울남연회 신년하례예배
- 1/8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재소자 위문금품 전달식
- 1/10 청지기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2021년 광림장학생, 다음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장로)는 믿음, 사랑, 나눔의 장학이념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를 위한 2021년 1학기 광림장학생을 모집한다.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감리교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자녀를 선발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장학금의 범위를 넓혀 서울남연회 소속 비전교회 목회자 자녀 중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비전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협력하여 나누는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으로 지난 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며 신앙심이 뛰어난 학생을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장학금 지원은 광림교회 홈페이지(http://klmc.net)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1월 3일(주일)~24일(주일) 오후 1시까지이며 마감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

광림장학위원회는 지난 22년 동안 미래의 요소를 꿈꾸는 학생들을 선발해 광림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가운데에도 학업의 열정을 품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도들의 장학헌금은 귀중한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문의: 장학위원회 박상희 권사
(010-5351-2640)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송구영신예배, 신년 축복의 메시지 전해

가정에서도 온라인예배 드리며 개인용 성찬키트로 성찬식에 참여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목) 밤 11시30분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소한의 인원만 본당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나머지 성도들은 사회봉사관을 비롯하여 교회 부속실 등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다. 자정이 지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정석



담임목사는 '복된 미래를 열어가라는 신년메시지를 전하였다.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에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의 것과 구별하여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며 둘째,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고 셋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땅과 교회와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를 드리고 새해 첫 성찬식을 거행했다. 이번 성찬식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하며 집례목사의 지시에 따라 미리 지급된 작은 전병과 1회용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삶과 피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예배는 100명의 가정을 줌으로 초대하였으며, 이들 가운데는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도 있었다. 이준석-박인순 집사(11교구)는 "딸 2명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만큼 집중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TV를 통해 성찬식 등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 은혜가 되었으며 어디서든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내 인생의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요15:16)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랐지만 부모님께서 불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내 오영란 권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 권사와 결혼한 후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교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독실한 광림교인으로 늘 제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었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광림교회 상계성전에 다니고 있을 때 교구 전도사님께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으라고 권면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담이 된다는 핑계로 본당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내향적이라 교인들과의 소통을 꺼렸고 선교회장을 하면서도 예배 외의 교제는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광수 권사님(남선교회총연합회 총무)께서 집으로 찾아와 3선교구 연합회장을 맡아달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아무 것도 몰라 할 수 없다는 제게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승낙한 후 연합회장으로 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과 예배위원으로 일하면서 제 성격과 삶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현관 로비에서 맞이하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를 안내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절에서 백일기도 후에 9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고 예수님 믿기를 꺼려하시던 아버님이 광림교회에서 세례 받고 천국 가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전도한 형제, 친척, 자녀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기술자로 하나님의 성전건축에 현장소장으로 쓰임 받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곽유근 권사 (남선교회총연합회 3선교구연합회장)

당회 / 구역회, 2021년 신천임원 선출

12월 27일(주일) 저녁예배에서 코로나19 방역위원들에게 봉사패 수여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 안 밖에서 이루어진 각종사업과 행정을 결산하고 2021년 신년계획을 세우는 당회, 구역회가 12월 27일(주일) 저녁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렸다.

당회, 구역회는 매년 12월 말에 열리는 교회 내 중요한 회의로 교인명부를 정리하고 광림교회를 위해 일할 직분자를 선출한다. 참석 대상은 세례 받은 18세 이상의 입교인과 교역자, 직분을 맡은 장로, 교회기관부장, 선교회 임원 등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올해 새롭게 직분을 받은 신천 집사는 50명, 신천 권사는 53명이다. 각 위원회 보고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등 40개 모두 서면으로 보고했다.

기타 업무 처리 시간에는 2020년 일 년 동안 전도에 힘쓴 임옥주 권사에게 전도상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 번도 빠짐없이 방역활동에 참여한 예배위원회 임시호 권사, 곽유근 권사, 유지영 권사, 남궁 규 권사와 장기간

주차관리 봉사를 해온 기드온선교위원회 박영노 장로(35년), 최재환 권사(22년), 트리니티찬양단 박미경 장로(30년), 이경미 권사(20년)에게 봉사패를 수여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 자리를 통해 한 해 동안 교회의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사들을 보고하며 2020년의 모든 행정과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몽골 선교 물품 지원

광림의료선교회, 남선교회총연합회, 따뜻한 집을 통해 의약품과 마스크, 의류 기증



2021년,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따라 신년 주일 해외 선교 물품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몽골 지역에 약 3억 원의 의약품, 의류, 핫팩 등을 기증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서부 내륙국가로 기아와 물 부족, 빈곤 국가이자 국제 원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들어 죽어나 굶어 죽어나 그 자체도 구분이 안 되는 곳입니다. 모슬렘 국가로서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로 인해 선교의 발달도 뜸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의료선교를 하는 서상봉 선교사가 우리 교회로 긴급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곳은 잠복 에이즈 보균자가 많아 면역력이 적어 피부병과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생기는 병, 영양결핍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으며, 생활 개선과 순회 진료도 필요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회에 기증된 속옷과 광림의료선교회에서 모아준 의약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재봉틀도 지원했습니다.



서상봉 선교사는 “광림교회의 기도와 베풀어 주신 관심,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라며 사진과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10월 홍수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에 광림교회는 캄보디아 선교사대회를 지원했는데, 그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속옷과 따뜻한 집에 기증된 옷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한인선교회장 표명대 목사는 “겨울철에는 한국보다 기온이 높아도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옷을 선교사들이 산간지역이나 홍수 피해를 본 지역에 들어가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광림교

회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몽골은 광림어르비트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인식 개선과 교육사업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광림 의료선교회를 통해 이미 마스크 10,000장과 1차로 여성 속옷 2,000여 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녀 속옷과 겨울옷, 남선교회에서 기증한 핫팩 등이 전달되었고, 주식회사 담터(장세근 장로)에서 캄보디아와 몽골 해외선교지에 담터 티 100박스를 기증해주셨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라는 말처럼, 어려울 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특별히 선교지를 돕는 일에 동참하신 많은 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선교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광림청년부, 2021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부에서 계획하였던 전도와 봉사,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더욱 '본질에 충실하라'는 담임목사님의 목회 지도에 따라 청년부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고 주일 5부예배와 속회, 양육시스템과 17개 지역팀까지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LFC 청년부는 교회의 표어(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에 따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Go beyond recovery to revival)'라는 목회적 방향성을 세우고 4대 프로젝트(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은 청년부를 재정비하는 원년이었다면, 2021년에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과 함께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LFC 청년부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프로젝트: 1,000명 예배자, 100개 속회
예루살렘 프로젝트는 청년부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2번의 총력전도 행사를 시행하여 소외와 고독, 외로움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과 9월에는 영적인 깊이와 뜨거움이 있으며 청년들의 색채가 담겨 있는 주일 5부예배로 리뉴얼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2021년에는 1,000명의 예배자, 100개의 속회로 부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다 프로젝트: 교육선교
유다 프로젝트는 감리교단에 속한 미자립교회의 교회학교 부흥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부분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7월에는 약 20개 지역, 200개 교회, 1,500명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선교를 진행함으로써, 다음세대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프로젝트 : 갓플렉스, 2021 성령 한국 청년대회

사마리아 프로젝트는 한국교회 청년 부흥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서울남연회와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갓플렉스(청년리더스포럼)'를 진행하고, 8월에는 '2021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하여 청년 부흥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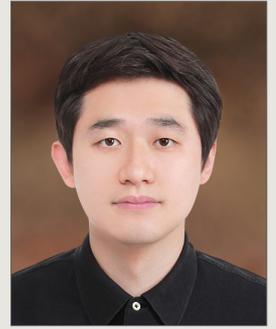
땅끝 프로젝트: 해외선교, 해외 100교회 건축
땅끝 프로젝트는 해외 선교지의 부흥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선교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선교 현장 또한 급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도와 지원,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해외 100개 교회 건축' 비전에 따라 60번째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LFC 청년부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세계 열방의 부흥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송 목사 (청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 목회현장 -



김요섭 목사 (1선교구)

살롬!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주는 기쁨은 다시 새롭게 한해를 기대하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하여 마치 시간을 빼앗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새롭게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으로 함께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안에 한 몸으로서 여전히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선교구 안에서는 그 연결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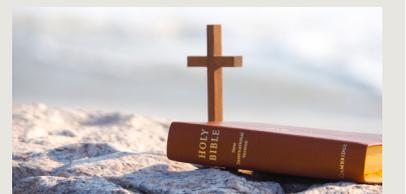
먼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온라인 속장 교육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속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성령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기력해지는 이 때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나아가야 할 것이 말씀 위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고 선교구 안에서 온라인으로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읽기는 매월 성경읽기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매주 읽을 성경 본문에 대하여 해설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미리 공부하고 본문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을 보다 쉽고 더 깊이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만날 수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Happy New Year~ In Christ!



광림교회학교 "ME WE 따로 또 다같이"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일상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교회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육의 기본을 생각해보는 한 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서로가 하나 되어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몸 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의 말씀대로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과 직업 출신 지역도 다른 개인이었지만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 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룬 역사를 성경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번 2021년 교회학교는 "ME WE 따로 또 다같이"라는 주제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나'를 뜻하는 'ME'라는 단어를 거울에 비추듯이 보면 'WE'가 됩니다.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공동체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 됨을 위해 먼저 개인은 예수그리스도의 뜨거운 첫 사랑을 회복하고 각 가정에서는 믿음의 교사로 세워진 부모님의 사명을,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견고히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이닝스쿨을 통해 주일에 집중된 예배와 신앙교육을 주중 예배와 신앙교육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자녀들이 교회공동체의 일원이며 교회에 미래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선교회, 광림남·서·북교회, 서울남연회와 협력하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르침과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세워진 영아부로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부서는 신앙의 기본과 가르침을 위해 B.A.S.I.C이란 교육과 활동의 방향성을 가져 신앙의 기본을 세워 갈 것입니다.

김호영 목사(교육국)



우리
교회
이래서 좋아요

“사랑하는 우리속회”

속회는
가족이다

속회는
사랑이다

속회는
회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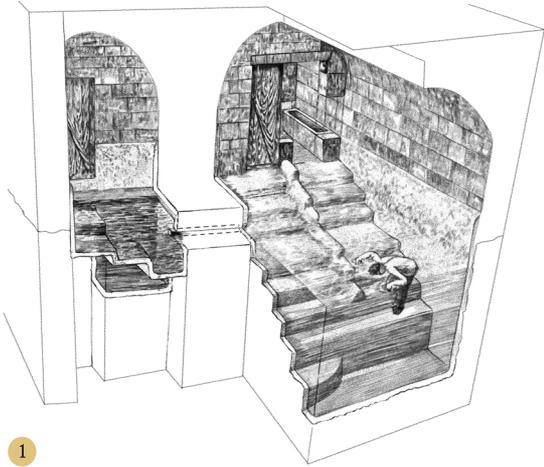
속회는
성김이다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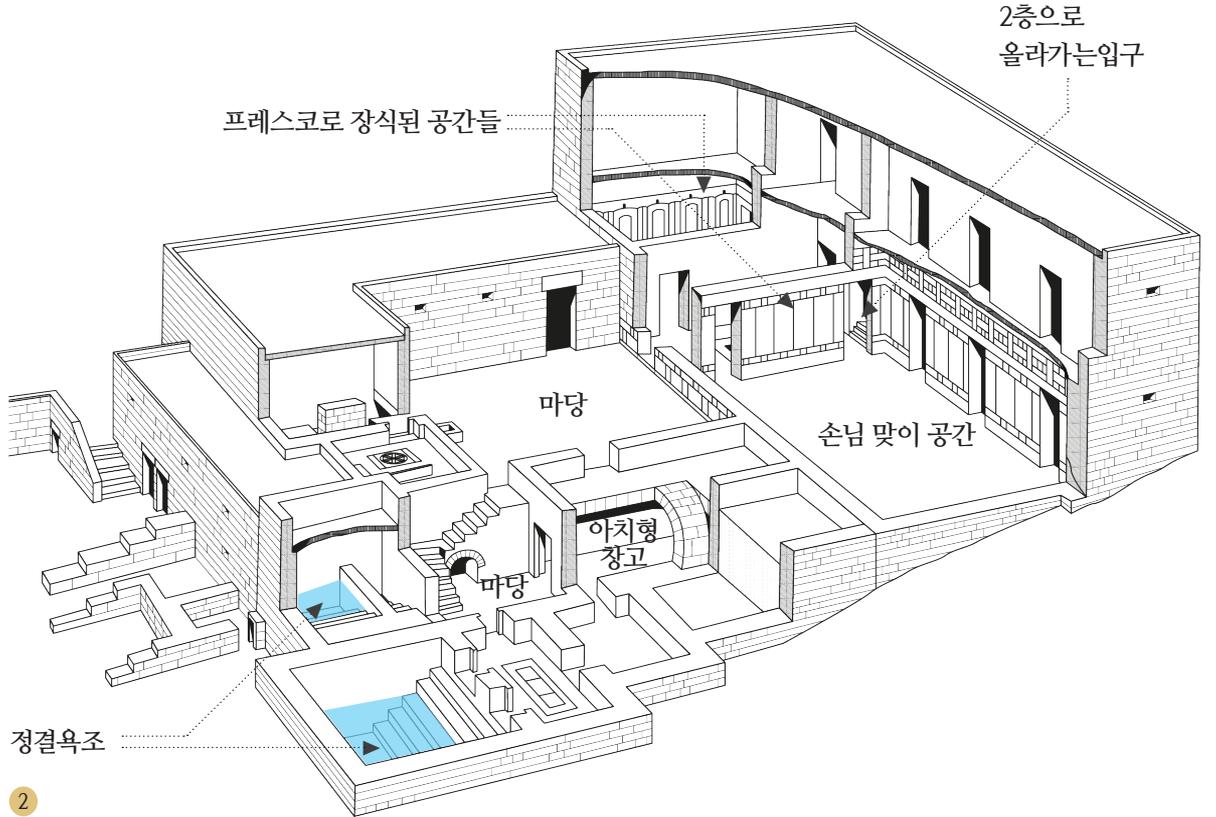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30 헤롯 구역(Herodian Quarter) Krater



1 ▲ 헤롯 구역 집에서 발굴된 정결 욕조를 재현한 모습

‘헤롯 구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상부도시’의 집들은 현재 ‘볼 고고학 박물관’ Wohl Archaeology Museum 에서 관리하고 있다. 성전을 내려다보는 이 아름다운 집은 여섯 개의 집 중의 하나이며, 제사장의 집으로 추정된다.



2

1967년의 ‘6일 전쟁’이 있기 전, 예루살렘 성은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의 후견자로서 실효 지배를 했습니다. 6일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시온 문(Zion Gate)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시온 문과 잇대어 유대인들이 살던 거주지역(‘유대인 구역’ Jewish Quarter)은 1948년 독립 전쟁 이후 아랍 연합군들이 중요 건물들과 거주지들을 다이내마이트로 파괴를 하고 승리의 상징으로 폐허로 남겨 놓았습니다. 6일 전쟁 승리 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뒤에 유대인 거주지역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무적으로 먼저 고고학 발굴을 하고 난 다음 그 위에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 발굴은 히브리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나흐만 아비가드(Nahman Avigad)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부터 14년에 걸친 유대인 구역의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 구역 안에서 값진 고고학 발굴물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1971-74년 사이에 발굴한 여섯개의 집들은 아름다움의 백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두개의 언덕(언덕이라지만 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이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로 골짜기가 지나가는 형세입니다. 성전이 있는 동쪽의 언덕을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고(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성전이 세워진 산이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부름), 서쪽에 그 보다 높은 언덕을 시온 산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구역은 시온 산에 있고, 이 여섯개의

집들은 시온 산의 비탈에서 모리아 산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집이 있는 시온 산의 비탈 위 쪽을 ‘예루살렘의 상부 도시’라고 부르는데, 헤롯 시대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은 이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 집들은 바닥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단층 또는 복층 집의 구조를 가지고 큰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거나 주랑들로 연결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의 곳곳에는 정결 욕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면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씻어야 하고(출 29:4; 레 16:4,24),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기 전에도 그래야했습니다(출 30:17-21).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병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환자가 낫게 되면 물에 몸을 씻어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레 14:8).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 집니다.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역시 몸을 씻음으로 부정한 상태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뿐 아니라 물건까지도 말이지요(레 15:5-12). 유출병(몸에서 뜻하지 않게 무언가가 흘러 나오거나, 또는 반대로 막혀서 나와야할 것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걸린 사람도 낫게 되면 물에 몸을 씻어야 했고(레 15:13), 생리를 하는 여성(레 15:27), 속죄일 제사를 마친 후 제물을 불사른

사람(레 16:28),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레 17:15),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사람(레 22:5) 등 물로 정결하게 해야 하는 다양한 종류의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의 제사장의 경우나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물에 씻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몸을 씻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에는 몸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디에서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부터 미크베(מִקְוֵה mikveh, miqveh)라는 이름의 정결 욕조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의 율법에서 정결 욕조 규정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이 보편화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지역에서 정결 욕조와 정결 욕조에 물을 공급해 주는 물 저장고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발굴된 곳은 쿨란이라는 곳입니다. ‘야하드’ 공동체라는 소규모의 공동체가 살던 사해 서편의 작은 지역인 데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쿨란의 정결 욕조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고고학자들의 마음을 가장 들뜨게 했던 정결 욕조는 바로 위에 말한 예루살렘 성의 유대인 구역에서 발굴된 정결 욕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주

인 때문입니다. 사실 그 건물의 주인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발굴 초기에는 그 아름다운 집들의 바닥 모자이크들의 문양이 마사다의 헤롯 궁전과 비슷해서 그 건물들이 헤롯 궁전의 일부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발견된 지역을 ‘헤롯 구역’ Herodian Quarter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집들의 바닥에서 기하학적인 문양들만 나오고 헬레니즘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문양들이 발굴되지 않는 점, 정결 욕조들이 작은 구역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점, 집들이 매우 호화로운 점, 그리고 성전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 있는 점, 시온 산의 최고 정상이 아닌 곳에 위치한 점들을 고려하여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호화로운 건물의 소유주가 제사장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제사장들의 정결 욕조인 셈입니다.

이름은 정결 욕조이지만, 그 욕조의 역할은 단지 한 사람의 상태를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바꾸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결 예식은 욕조에 몸을 담고 나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것이 더 큰 의미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와 만나동행하는 새로운 시작 말이지요. 2021년은 날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작년과 다른 새로운 은혜의 해(年)를 맞이하시길 기대합니다.

사진설명

- 1 '헤롯 구역' 집에서 발굴된 정결 욕조를 재현한 모습
- 2 '헤롯 구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상부도시'의 집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